

우회전 교통사고 문제와 솔루션

1조: 조민제 김시온 송도현 채승민

대형차량의 사각지대 문제

우회전사고 보행사망자, 횡단보도 가장 많아

-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지켜주세요

-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,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

- 경찰청(청장 김창룡)과 도로교통공단(이사장 이주민)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,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.4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.
- 최근 3년간(2018~2020년)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, 부상자는 13,150명이며,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(59.4%)으로 가장 많았다.
-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(32명)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,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.

-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감지하고, 이를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해야함
 - 사각지대가 아닌,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신호를 설치
 - 음성신호는 잘 안 들릴 수 있으니 시각적인 신호를 설치

횡단보도 앞 행인 감지법 그리고 각각의 감지법에 따른 문제점

- 감응: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를 밟으면 감지하는 법
 - 사람이 아닌 차량이나 화물이 센서 위에 있어도 감지가 될 수 있음
 - 특정 위치에만 사람이 서있을 확률이 적음(멀리서 신호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어린이 등.)
- CV: 카메라로 횡단보도를 촬영하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하는 법
 - 카메라도 다른 장애물에 가려 사람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.
- 비콘: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보행자가 신호등 근처에 가면 신호를 주는 법
 - 스마트폰이나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타 다른 장비(시각 장애인의 리모컨 등)가 강요됨.

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근처에 있음을 알릴 방법



- 어린이 보호구역의 LED 표지판처럼, 현재 근처의 보행자 여부를 표시
 -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 표지판보다 가시성이 뛰어남
 -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, 미처 발견하지 못하더라도, 보행자 여부에 따라 정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있음.

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근처에 있음을 알릴 방법



- 정지 표지판을 이용해서,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,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불이 켜지는 형식의 표지판 이용
 -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, 교통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음.
 - 이 또한 밤에는 가시성이 더 뛰어나서 잘 보이게 됨.

보행자에게 차량이 있는 걸 알리는 방법



- 횡단보도에 있는 led와 비슷하게, 차량이 다가오면 점멸등 특별한 신호로 보행자에게 접근 중인 차량이 있음을 알린다.
- 혹은 스피커로 차가 오는 것을 경고하는 방법등으로 보행자에게 차량이 오는 것을 알릴 수 있다.